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타이어 관리법



타이어는 차량 성능과 안전에 직결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관리할 때 오일류와 엔진, 브레이크 관련 부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타이어도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어야 한다. 타이어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부분이자, 가속, 제동, 코너링 등 자동차 주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동차 부품이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간과하기 쉬운 타이어 상식을 'HMG JOURNAL' 이 소개했다.

■ 새 타이어 장착 후 급제동, 급정거 자제하기

새 타이어는 기존 사용하던 타이어에 비해 부드럽고 무른 편이며, 내부 구조 역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타이어 장착 후 약 500마일 정도까지는 과속, 급제동, 급가속을 자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가속 및 제동 시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강한 마찰열이 발생해 변형, 과도한 마모와 편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한 마모가 생기면 승차감을 떨어뜨리고 회전 저항이 증가해 전반적인 타이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과도한 코너링 및 비포장도로 주행을 길들이기가 끝나기 전까지 피하는 것이 좋다.

■ 타이어에 있는 돌기와 스티커는 자연스러운 것



▲ 타이어 스푸는 제조 공정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운행 중 마모되어 사라진다.

새 타이어를 보면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다. 바로 타이어 겉면에 있는 털 같은 돌기와 휠과 타이어에 붙어있는 스티커다. 털 같은 돌기는 타이어 스푸(tire spews)인데 벤트 스푸(vent spews)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이어 스푸는 새 타이어의 측면과 트레드(마찰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고무롤 틀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틀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뚫어 놓는데, 그 구멍으로 고무가 흘러나와서 굳어버린 것이 타

이어 스푸인 것이다. 타이어 스푸는 타이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레드 부분에 있는 것은 운행 중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사라진다.



▲ 타이어와 휠에 붙은 스티커는 휠과 타이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붙인다.

신차 출고 시, 휠과 타이어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무엇일까? 바로 밸런스 마크다. 밸런스 마크는 휠 얼라인먼트와 휠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 쓰인다. 휠 얼라인먼트는 차량 전체의 균형에 관여하고, 휠 밸런스는 타이어와 휠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휠과 타이어의 밸런스가 어긋난다면 차가 속력을 낼수록 진동이나 소음이 심하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휠의 가장 가벼운 쪽에 스티커를 붙이고, 타이어의 가장 무거운 쪽에 스티커를 붙여 각 요소를 조정하면서 최고의 무게 밸런스를 찾는다.

■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타이어 펑크를 의심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은 타이어 펑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타이어 펑크의 올바른 표현은 플랫 타이어(flat tire)다.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가 장착되어 있어, 계기판에 표시되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를 통해 타이어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TPMS가 없는 차량이 주행 중이라면

어떻게 타이어 손상을 알 수 있을까?

주행 중 타이어가 망가졌다면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핸들이 무거워지고 비정상적인 진동이 생길 수 있다.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올바른 직진 주행이 어렵고, 코너링을 할 때 차량 움직임이 불안정해진다.

■ 타이어 마모 한계선을 확인 후, 타이어 교체



▲ 마모 한계선과 제조일자로 타이어 컨디션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행 거리에 맞춰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도로 상태, 운전습관, 기후, 트레드 디자인과 평소 타이어 관리 방법에서 그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 거리에 따라 교체 주기를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타이어의 교체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교체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다. 타이어 마모 한계선은 보통 타이어 트레드 안쪽 양각 처리된 사각형 형태로 존재한다. 표시된 마모 한계선까지 타이어가 마모된다면 타이어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이어 마모 한계선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타이어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코너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거나, 부드러운 주행이 힘들다면, 타이어 옆면에 새겨진 제조 일자를 확인해보자. 타이어 제조 일자는 보통 측면부에 표기되며,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719는 19년도 27번째 주차에 생산된 것이다.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생산 당시 성능의 77%, 7년이 지나면 22%까지 하락한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며 도로 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품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평소 운전하기 전 타이어를 보는 습관을 지니면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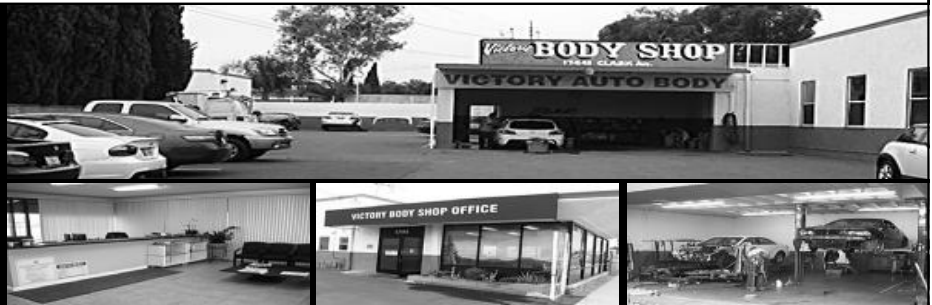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